2026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

경기사협
26. 8. 5.
김 은 지

□ **일　　시**: 2026. 7. 28.(화) 14:00

□ **장　　소**: 온라인 줌(ZOOM)

□ **참　　석**: 총 11명(위원 9명, 사무처 2명) *불참 위원 9명

○ 위　원: 전한욱 위원장, 박정하 간사, 임영희 위원, 김민주 위원, 조숙경 위원, 이희순 위원, 이창옥 위원, 김정숙 위원, 엄주영 위원

○ 사무처: 최미숙 센터장, 김은지 주임

□ **회의결과**

구분	회의 내용
논의 사항	**○ 장기요양 사회복지사의 현실 및 대표성 공백 문제** -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처우, 경력, 전문성 인정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. - 직능 대표조직 부재로 정책 반영과 권익 옹호에 한계가 있음.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회가 부족함. **○ 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 설립 전략** - 현장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'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' 설립이 필요함. - 처우개선비 요구를 넘어 전문적 대표 조직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. **○ 영역별 사회복지사협회 발전 경로 분석** - 학교, 정신건강, 의료 영역별 사회복지사협회 벤치마킹 필요. - 특수 직능협회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여 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의 현실적인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□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- 학회 출범 후 법정 전문 영역으로 진입하였고, 수련 및 교육이 체계화되었음. - 법률 제도화에 앞서 수련 체계와 현장의 전문성이 먼저 구축되었음. 현장의 전문성 축적을 국가가 제도화한 구조임. -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구조화 과정을 통해 수련과 표준의 운영 능력을 벤치마킹 해야 함. □ 의료사회복지사협회 - 오랜 현장 축적 후 국가자격화에 이른 대표적인 사례임. - 협회를 만든 뒤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을 측정 및 검증하는 체계를 만든 뒤 제도화를 요구해야 함. - 표준 직무 개발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구분	회의 내용
	□ 학교사회복지사협회 - 시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실천가를 제도화하였고, 현장의 성과를 제도화로 연결하였음. - 시범사업과 정책성과가 학교사회복지사 직무의 필요성을 증명함. - 성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. **○ 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 방향** - 장기요양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, 교육, 윤리, 권익, 경력, 정책대표성을 대표하는 개인 회원 중심의 직능단체로 나아가야 함. - 대표성 확보, 전문성의 객관화, 정책의제 전환, 정책연합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사무국 운영체계 등의 마련이 필요함. **○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** - 위원회는 내부 정책창구로 존속하고, 별도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명칭・자료・회계・의사결정 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.
차기 회의	**○ 5차 회의(대면) 일정** - 일시: 2026. 8. 25.(화) 14:00 - 장소: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
회의 사진	 